

■ 반쪽 서평 ■

『정체성의 정치학』
홍태영, 서강대출판부, 2011, 400쪽.

서강학술총서로 출판된 『정체성의 정치학』은 ‘국민적 정체성’과 ‘시민의 시민됨’이라는 양면을 다룬 본격 학술서이다. 이 책에 앞서 저자 홍태영은 『국민국가의 정치학』(2009)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되어 온 근대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그 역사, 그리고 그 기저에 흐르는 정치철학을 탐구한 바 있다. 국민적 정체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본 저서는 그 후속 결과물이다. 필자는 오랫동안 정체성의 문제, 특히 문화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을 준비해 왔는데, 그 문제의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. 첫째는 국민국가의 주체로 설정된 국민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문화의 위상과 역할이고, 다음은 국가권력에 의해 형성된 국민문화를 넘어서려는 문화적 열정의 계기들이다. 구체적으로는 축제, 여성, 문화적 공간, 광장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. 본 저술은 저자가 그 동안 발표한 10여 편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. 책머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듯이, 저자는 끊임없이 학술지에 글을 쓸 것을 강요하는 대학사회이기에 이런 방식으로 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음을 유감스러워 한다.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이다.